

# “드높은 이상 향해 꾸준히 정진하기를”

글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아산장학생들과 아산재단 임원진, 내빈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앞줄 왼쪽부터 윤삼례(방통고2), 이재룡(세종하이텍고3), 최승호(한성대2), 차다울(중앙대3), 김이삭(건국대3), 팜 티민 수언(연세대 대학원), 김지성(인천재능대2), 김성민(경희대4), 채희진(동남보건대3), 홍지혜(한국외대3), 엄윤섭(고려대3), 이민선(이화여대3), 김형주(상명대4), 원지선(서강대4) 장학생. 뒷줄 왼쪽부터 최재성 이사, 정진규 울산공업학원 이사, 김재엽·이관 자문위원, 박상혁 울산공업학원 감사, 장정자 이사, 정정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이경숙·이춘립·장명수·김종인·김명자 이사, 정몽준 이사장, 김유후 이사, 두 사람 건너 이봉주 이사와 MIU 및 각 대학 관계자들

아산재단은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에 자리한 아산 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2015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아산재단 임원진과 각계 인사, 장학생과 학부모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은 이춘립·장정자·김유후·장명수·이경숙·김명자·민형동·이봉주·김종인·최재성 아산재단 이사와 김재엽·이관 재단 장학 및 명예자문위원, 엄태식 수원여대 총장·김유경 한국외대 부총장 등 학계 인사, 박상욱 국

방부 복지정책과장·한상갑 경찰청 복지정책지원계장·김홍필 소방정책과장·이종욱 해양경비안전총괄계장 등 MIU(Men in Uniform, 군인·경찰관·소방관·해양경찰) 관계자, 이승규 아산의료원장·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과 정정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등이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 아산장학생에 선발된 학생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한 뒤 작년에 미국에서 경험한 일을 언급했다.



수여식에 참석한 내빈과 학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축하와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경숙 이사과 정몽준 이사장(왼쪽부터)

지난 8월 정몽준 이사장이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세계적인 제약회사 화이자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3천여 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 그곳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할 사람은 뜻밖에도 한국인인 한성일(49) 박사였는데,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한 박사는 정몽준 이사장을 찾아와 자신이 고려대와 미국 퍼듀대학교를 졸업한 아산장학생이라고 인사했다는 것이다.

생명과학자로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한 박사는 “아산장학금 덕택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딛고 학업을 무사히 마친 뒤 화이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나중에 한국에 꼭 돌아가 생명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아산의 향기〉 2014년 겨울호 참조).


## “가능성 무한한 아산장학생”

“한 박사를 만나서 커다란 보람을 느꼈다”는 정몽준 이사장은 이어서 “아버님의 자서전인 〈이 땅에 태어나서〉를 보면 고려대학교 공사장에서 등짐을 져서 돌을 나르는 일을 하셨다는 구절이 나온다”면서 “아버님께서도 당시 책을 끼고 다니던 또래 대학생들이 부러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울산대학교와 현대고등학교 교정에 ‘이루지 못한 배움에 대한 갈망이 여기 배움의 주춧돌을 놓게 하였다’는 글귀를 새긴 ‘창학정신비’를 세운 것은 그때부터였다”고 회고했다. 특히 “올해는 아산재단을 만드신 아버님의 탄신 100주년인 만큼 ‘젊은이들이여, 열심히 학문을 익혀 드높은 이상으로 꾸준히 정진하기 바란다’는 창학정신을 가슴에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재단 이사인 이경숙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금년 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아산장학생들에게 맨 먼저 왔다”며 축하인사를 전한 뒤 가능성이 무한한 아산장학생들이 앞으로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음의 다섯 가지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우선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고 매일 새롭게 시작하며,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습관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리더를 꿈꾸며,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달라는 당부였다. 아울러 이경숙 이사는 “아산장학생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면서 아산재단 설립자인 정주영 초대 이사장의 아산정신을 항상 가슴에 품어줄 것을 바랐다.

아산재단은 매년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고등학생 844명과 대학생 900명 및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유학온 대학원생 10명 등 모두 1,754명에게 장학금 50억 원을 전달했다. 고등학생에는 일반고(264명)뿐 아니라 방통고 재학생(80명)이 포함돼 있고,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e-learning장학생(500명)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에는 성적우수장학생(342명)과 다숨(장애우)과 나라(다문화 및 조손 가정·시설 출신·저소득층), 재능나눔장학생 등 다른 장학재단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수목적장학생(278명)이 포함돼 있고, MIU 자녀(230명)와 연변대 및 연변과기대 재학생(50명)도 지원하고 있다. 아산재단은 1977년 설립된 해부터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27,771명에게 50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 인사말과 축사 전문, 관련사진은 아산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http://www.asanfoundation.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대고등학교 교정의 ‘창학정신비’